

울수 있다.

저자들은 3례의 전이성 신세포암종의 세침천자 도말 소견을 재검토하였다. 골격으로 전이한 2례는 투명세포형의 신세포암종의 소견을 보였고, 폐로 전이한 한 예는 과립세포형의 소견을 보였다.

세포학적 소견: 매우 풍부한 세포질을 지닌 세포들이 주로 판상으로 배열되었고, 간혹 큰 세포의 집단을 형성하며 도말되었다. 큰 세포집단에는 중앙에 가지를 치는 혈관이 존재하고, 그 주위로 종양세포의 배열을 볼 수 있었다. 투명 세포형에서는 세포질이 매우 얇은 막성(filmy)으로 희미하게 염색되었고, 간혹 미세 공포를 가졌고, 나핵의 형태로도 자주 도말되었다. 과립 세포형에서는 호산성의 과립상 세포질을 볼 수 있었고 세포의 다형성이 매우 심했고, 거대세포가 자주 관찰되었다. 핵의 다형성이 관찰되었고, 뚜렷한 핵소체를 보였으며, 핵은 비교적 둥글거나 난원형이었고 간혹 핵막의 불규칙성을 보였다. 세포 및 핵의 대소 부동증 또한 뚜렷하였다.

12.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진단된 췌장에 발생한 유두상 고형상피종

- 1례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Papillary and Solid Epithelial Neoplasm of the Pancreas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해부병리과

김유훈, 김애리, 김한겸, 김인선

췌장에 발생하는 유두상 고형상피종은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며, 악성도가 경한 암종으로서, 충실성 혹은 부분적인 낭성 병변으로 나타나며, 절제후 예후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세침흡인생검의 발달로 인하여 췌장 등 후복강내 장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양들에 대한 세포학적 검사가 초기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자들은 복통과 복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10세 여아에서 세침흡인생검을 통하여 진단된 췌장의 유두상 고형상피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방사선학적 검사상 췌장 기원으로 생각되는 후복막강 종괴이었으며, 크기는 $9 \times 9.5 \times 8$ cm 이었고, 충실성 병변으로 생각되었다. 세침흡인생검을 실시한 결과 유두상 종양 조직편들이 관찰되었으며, 종양세포들은 서로 밀집되어 있었고 핵은 둥글고 비교적 균일하며 뚜렷한 핵소체는 관찰되지 않아서 유두상 고형상피종으로 진단하였다. 그 후 절제된 종괴에서 실시한 조직학적 검사상 동일한 소견이 관찰되었다.